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448-5454, 2013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448

전문대학 졸업생 역량 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과정 방향성 제고

이병화[1], 김수현[2*]
[1]거제대학교 세무회계과, [2]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A Suggestion on College Curriculum through the Competencies analysis of College Graduates

Byung-Hwa Lee[1] and Soo hyun, Kim[2*]
[1]**Dept. of Tax Accounting, Koje College.**
[2]**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je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역량을 분석해 보고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생 2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역량중요도-역량실행도를 분석하고, 역량중요도와 대학기여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대응표본 t-test와 IPA를 활용하였다.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12개 영역에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A 분석 결과 1사분면에 4개 영역, 2사분면에 1개 영역, 3사분면에 4개 영역, 4사분면에 3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역량중요도와 대학기여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2개 영역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중요도에 비해 대학기여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전문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by analyzing basic occupational skills and acquired knowledge of vocational college graduates. A total of 236 graduates were sampled to examine their competency importance level - competency performance level, and study differences between competency importance level and contribution level of college education. The paired sample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competency importance level and Competency performance level in regard to acquired knowledge and basic occupational skills.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 in 12 areas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According to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differences were presented in 4 areas in the first quadrant, 1 in the second quadrant, 4 in the third quadrant, and 3 in the fourth quadrant. In comparison study between competency importance level and college contribution level, the latter was found to be relatively less influential as differences were presented in all of 12 areas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This research will helps to enhance the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 program in vocational college.

Key Words : Key competencies, College Satisfactio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1. 서론

한국 전문대학은 1979년 '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수업연한도 2년으로 확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 지난 30여년간 400만명의 기술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현재 거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산업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추세임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은 유일한 직업교육기관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마치고 조기에 직업세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도 많으며,

*Corresponding Author : Soo hyun, Kim(Koje College)
Tel : +82-55-680-1680 email : shkim@koje.ac.kr
Received August 1, 2013 Revised August 23,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학 수준의 실무인력을 요구하는 산업체도 많이 있다[7]. 그러나 산업계는 대학교육에 대하여 교과목 일치도 60%, 교과 수업 충실도 48점, 직무 역량 부서장 만족도 72점, 현장실습내용 적절성 46점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대학 교육과 산업계 요구와의 불일치 현상은 산업 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산업계의 니즈에 적합한 교과과정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으로 강성원 등(2001)은 현장실습 및 실험실습, 의사소통능력, 정보화능력, 문제해결능력, 국제화능력, 대인관계능력, 인성, 창의력, 자기관리능력, 전공기초능력, 교양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2003)에서는 기획・문서작성, 기업실무, 프리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기법, 국제화능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비즈니스예절, 올바른 가치관, 경영철학, 창의적 사고력, 자기관리법, 전공이론, 전공현장실습, 경영학기초 등을 제시하고 있다[3].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형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모든 직종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전공지식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과 전공지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평생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직업기초능력과 전공지식을 강화해야 하는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평생에 걸쳐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영방향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도 인식과 실제 직업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집중적으로 실행 노력을 기울이고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직업기초능력과 전공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차이는 어떠한가?
3.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중요도와 대학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전문대학졸업을 한 지 3년 이내의 졸업생 중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약 300부를 배부되었으며, 2013년 1월 8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합된 248부의 응답 중 직장에 다녔으나 현재 미취업 상태 경우, 설문문항에 모두 다 표기하지 않은 경우, 한 가지 답으로 일관한 경우, 중간 중간 답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236부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data

Question		frequ-ency	percent-age(%)	sum
sex	man	70	29.7	236 (100%)
	woman	166	70.3	
way to get a job	college recommendation	50	21.2	236 (100%)
	senior/friend recommendation	19	8.1	
	open appointment	128	54.2	
	family recommendation	16	6.8	
	etc	23	9.7	
company	education institution	16	7.0	236 (100%)
	major company	47	20.6	
	small business	36	15.8	
	private business	1	0.4	
	medical institution	116	50.9	
	general office	1	0.4	
	government organization	4	1.8	
	etc	7	3.1	
career fields	specialized job	151	64.0	236 (100%)
	managerial career	1	0.4	
	administrative position	13	5.5	
	office job	38	16.1	
	production employee	8	3.4	
	sales and service	3	1.3	
	private business	1	0.4	
	public official/ teacher	9	3.9	
	homemaker	1	0.4	
	student	1	0.4	
	etc	10	4.2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역량 중요도와 역량실행도(자신의 역량수준), 나아가 대학기여도의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표준에서 제시한 직업기초능력영역과 전공분야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설문문항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 배경변인을 묻는 4개 문항과 직무수행에서 필요한 역량중요도 12개 문항, 직무에 대한 현재 본인의 역량실행도 12개 문항, 직무활용에 대한 대학기여도 12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문항의 척도는 Likert 7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특히,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하기 위해 통계전문가 1명, 취업관련 전문대학교수 2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설문지의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크롬바흐 알파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중요도 = 0.942, 실행도 = 0.950, 기여도 = 0.96으로 상당히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적 방법은 취업대상자들의 중요도와 실행도, 대학의 기여도 간 평균차이를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matrix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대학에서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 제시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여 개선해야 하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IPA matrix는 연구대상자가 판단하는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이는 정해진 인력과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방법이다[2]. 모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 5%로 정하였으며 SPSS® 18.0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중요도-실행도 분석은 중요도와 실행도의 각 평균값을 이용하여 X축과 Y축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생겨나는 4개 분면에 각 위치를 표시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Fig. 1]처럼 제 1사분면은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제 2사분면은 과잉노력을 지향해야 할 항목, 제 3사분면은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항목, 제 4사분면은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한다. 즉 영역별 또는 항목별 평균값이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처방해야 한다.

분석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들의 역량중요도, 실행도, 대학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전문대학에서 직업기초능력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Fig. 1]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Matrix

3. 연구결과

3.1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역량중요도, 역량실행도, 대학기여도 인식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역량중요도, 역량실행도, 대학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다. 역량중요도 전체 평균은 5.62, 표준편차는 1.18이고, 역량실행도의 전체 평균은 4.84, 표준편차는 1.10이고, 대학기여도의 전체 평균은 4.65, 표준편차는 1.28로 나타났다. 중요도-실행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전공지식 및 직업기초능력이 중요한 역량임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재 역량의 실행 수준이나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11.064, p<..001).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전공분야 전문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졸업생 자신이 실행하는 정도 순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문화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관리 및 개

발 능력 역량의 순위를 살펴보면 중요도에서는 3위였지만, 실행도 순위에서는 10위로 나타났으며, 문화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활용능력의 중요도 순위는 낮았지만, 실행도 순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경력이 3년 이내로 제한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대학기여도 순위를 살펴보면 전공분야 전문 지식,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기술활용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경우 중요도-실행도-대학기여도 모두 순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수리활용능력의 경우 중요도-실행도-대학기여도 모든 순위가 최하위인 12위 인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2] competencies importance mean, rank

Question	competence importance		
	M	SD	Rank
overall mean	5.62	1.18	
specialism expertise	5.75	1.28	5
self management and development competence	5.85	1.08	3
communication competence	5.97	1.03	2
mathematical competence	5.04	1.28	12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5.32	1.22	11
problem solving competence	5.82	1.13	4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5.34	1.25	10
technology using competence	5.40	1.24	9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6.01	1.09	1
culture comprehension competence	5.53	1.27	8
organization understanding competence	5.66	1.16	7
change management competence	5.69	1.17	6

[Table 3] competencies performance mean, rank

Question	competencies performance		
	M	SD	Rank
overall mean	4.84	1.10	
specialism expertise	4.76	1.14	9
self management and development competence	4.69	1.17	10
communication competence	4.92	1.04	4
mathematical competence	4.57	1.13	12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4.83	1.08	6
problem solving competence	4.78	1.08	8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4.68	1.05	11
technology using competence	4.80	1.10	7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5.12	1.11	1
culture comprehension competence	4.97	1.07	3
organization understanding competence	5.06	1.09	2
change management competence	4.89	1.08	5

[Table 4] college contribution rate mean, rank

Question	college contribution		
	M	SD	Rank
overall mean	4.65	1.28	
specialism expertise	5.08	1.31	1
self management and development competence	4.66	1.36	5
communication competence	4.74	1.30	3
mathematical competence	4.48	1.23	12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e	4.54	1.18	11
problem solving competence	4.60	1.22	7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4.56	1.25	10
technology using competence	4.68	1.23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4.75	1.27	2
culture comprehension competence	4.57	1.32	9
organization understanding competence	4.60	1.30	6
change management competence	4.59	1.33	8

3.2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 인식 차이 분석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졸업생의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Table 5에 정리된 것과 같이 유의수준 .001에서 12개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각 영역에 대한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전체 평균 점수와 각 영역별 점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요도(평균=5.62)의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하면 다른 영역에 비해 수리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활용능력, 문화이해능력이 낮은 점수를, 실행도(평균=4.84)의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하면 다른 영역에 비해 전공분야 전문 지식,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수리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활용능력이 낮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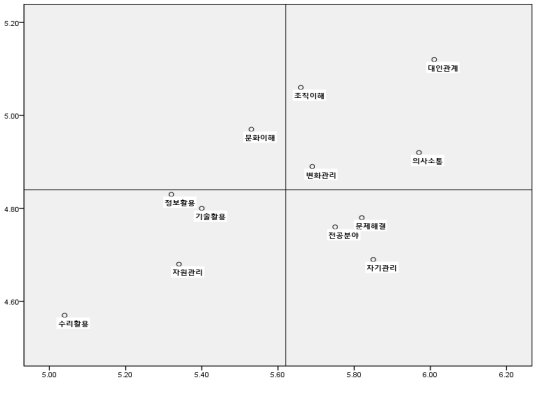
[Tale 5] T-test of competencies
(I-importance, P-performance)

Question		M	SD	t-test
specialism expertise	I	5.77	1.265	10.937***
	P	4.77	1.143	
self management and development competence	I	5.87	1.061	14.682***
	P	4.69	1.171	
communication competence	I	5.97	1.025	13.526***
	P	4.92	1.044	
mathematical competence	I	5.05	1.280	6.121***
	P	4.57	1.130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I	5.31	1.222	6.551***
	P	4.82	1.082	
problem solving competence	I	5.83	1.133	12.773***
	P	4.78	1.076	
resource management competence	I	5.35	1.248	8.077***
	P	4.69	1.052	
technology using competence	I	5.41	1.236	7.497***
	P	4.80	1.1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I	6.02	1.076	11.373***
	P	5.12	1.105	
culture comprehension competence	I	5.52	1.267	7.175***
	P	4.97	1.070	
organization understanding competence	I	5.66	1.164	7.799***
	P	5.05	1.084	
change management competence	I	5.69	1.166	9.843***
	P	4.89	1.079	

*** p<.001

3.3 IPA 분석에 따른 졸업생의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 인식 차이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별 졸업생의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의 차이를 보이는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도(M=5.62)와 실행도(M=4.84)의 각 평균값을 이용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 매트릭스에 각 영역의 위치를 나타내면 [Fig. 2]와과 같다.



[Fig. 2] IPA analysis

분석 매트릭스에서 볼 수 있듯이, 1사분면에서부터 4사분면에 고루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분면을 살펴보면, 1사분면(좋은 성과 지속유지 영역)에는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의 항목들이 위치하였으며, 2사분면(과잉노력지양 영역)에는 문화이해능력 항목이 위치하였다. 3사분면(낮은 중요도 영역)에는 정보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활용능력이 위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사분면(노력집중지향 영역)에는 문제해결능력, 전공분야 전문 지식,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이 이에 해당된다. 단순한 중요도-실행도 간 차이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각 사분면에 놓인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4.1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역량진단에 대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 주요 역량을 기반으로 역량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지식과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각 영역별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12개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각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의 차이에서 특히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역량이 중요도 3위, 실행도 10위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 역량은 중요도-실행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기초능력 개발을 위해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1순위가 자기관리역량이라고 지적한 [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대인관계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때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성향의 내용이 아니라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자기 개발 및 조직 내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론적 지식이 아닌 현장적응 지식이 되어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기개발 및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IPA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각 영역별 역량중요도와 역량실행도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매트릭스를 그려본 결과, 1사분면(좋은성과 지속 유지)에는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이, 2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는 문화이해능력이, 3사분면(낮은 중요도)에는 정보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활용능력이, 4사분면(노력집중화의 지향)에는 문제해결능력, 전공분야 전문지식,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결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이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변화관리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연한이 짧은 전문대학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전공교육과정에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역량 개발은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능력, 전공분야 전문지식,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은 4사분면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직업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이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역량들은 전공교과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교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의 실제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실제적 상황에서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의 적극적인 개선이다.

넷째, 역량중요도와 대학기여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요도 수준에 비해 대학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PA 분석 결과와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1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하는 역량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대학에서 이러한 역량들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편, 교수법의 다양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한계점으로서, 전문대학 3년 이내의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물론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오래되지 않았기에 3년 이내로 한정지었지만, 향후 전문대학 졸업생, 4년제 졸업생의 역량을 분석한다면 학교 간 역량수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을 통한 수단이든 개인적 노력 차원에서든 역량수준 제고를 위해 각 역량에 대한 대학기여도를 평가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평가의 한 요소로 적용할 수도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역량들은 졸업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분석한 것이기에 산업체의 졸업생에 대한 역량분석은 배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평생에 걸쳐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니즈와 만족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한다면 전문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특화된 운영방향과 실질적인 지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Hyon-Dong, Kim, " Women college Graduate and Job Satisfaction - Interacting Effects of Job Readines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4, pp. 241-258, 2011.

[2] Seong-Seop, Kim, Jae-Moon, Lim, Hyung-Ryong, Lee, "Evaluation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Using 「Importance-Preformance」 Analysis: A Case Study of ISR2001", *Tourism Management*, Vol. 16, No. 2, pp. 257-274, 2001.

[3] Suuny, Kim, Youngshim, Kwon,, Jisook. Shin, "A Study for Promoting Ke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 19, No. 2, pp. 57-77, 2012.

[4]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University Evaluation of Industry view", 2009.

[5] Eun-Hwa, Lee, So-Jung, Yune, Sung-Hee, Huh, "Differences of Percep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o the Key Competencie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hrough A college Practic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4, pp. 51-67, 2011.

[6] Jeong Ji., Noh, " A Study on the Cognition of Professors and Students and the Differences in Student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Key Competencies of Korea Polytechnic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13, No. 2, pp. 105-125, 2011.

[7] Yong-Kyun Lee, Kisung Lee, "Research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Korea's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2, pp. 69-90, 2010.

[8] Young-Ho Hong, Jin-Hong Park. “Satisfation of Industry Research for the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9, No. 9, pp. 3967-3974, 2011.

[9] So Youn, P., "Development of competency model for social entrepreneu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12, No. 2, pp. 67-87, 2010.

이 병 화(Byung-Hwa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 1998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수료
- 1999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교 세무회계과 부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거제대학교 기획부처장

<관심분야>
관리회계, 회계정보시스템

김 수 현(Soo hyun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 석사)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교육학 박사)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BK Post Doc.
- 2010년 3월 ~ 현재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관심분야>
교육학, 교수설계, CSCL, HRD.